

특별기고
70주년 축하 일러스트

이정문 만화가
(대학주보 7기)

창간 70주년을 맞아 대학주보 7기, 만화가 이정문(상학) 동문이 축하 일러스트를 대학주보에 보냈다. 이정문 만화가는 1959년, 만화 <심술참지>로 데뷔했고, 특히 대표 캐릭터 '심술통'을 이용해 다양한 작품활동을 펼쳤다. 대표적으로 <심술가족>, <심술통 만화일기>, <심술통 만화 탈무드>, <심돌이와 심숙이>, <만화 천자문> 등이 있다. 이외에도 <파이팅 손오공>, <철인 캠타우> 등이 있으며, 1993년에는 한국만화문학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2면에서 계속 →

지금 우리가 사는 세계가 문명사적 중층 위기, 복합 위기라는 말을 많이 들어보았으리라 생각해요. 지구 행성의 기후 위기, 핵, 파괴적 과학 기술의 유례 없는 발전 속도. 이런 시대의 난제가 우리가 당면시키는 일상을 일순간 무너뜨릴 수 있어요. 이와 함께 일자리, 양극화, 정치·사회적 혼돈,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가 공유해야 할 미래가치의 부재 문제가 현대사회의 어려움을 더해가고 있습니다.

1965년 영국 옥스퍼드에서 개최된 세계대학총장회 창립총회에서 기조연설자로 초청된 아놀드 토인비가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인류의 미래를 위협하는 난제 해결에 나라와 정치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그 이야기는 지금도 유효해 보여요. 이제 “진화, 혹은 절멸” “평화, 혹은 붕괴”라는 절박한 화두가 시대적 삶과 함께하고 있어요.

대학은 미래세대를 위해 존재합니다. 미래세대는 과거와 크게 다른 미래를 살아야 하죠. 기후변화는 문명 붕괴를 초래할 수 있어요. 초인공지능의 임박한 출현 가능성은 전혀 없는 혜택을 주겠지만, 일자리 붕괴, 양극화 심화, 인간 무용론의 세계를 만들 수 있어요. 이 모두 우리가 함께 풀어나가야 할 중대한 과제이며 미래세대의 미래를 위한 실천적 노력에도 더 많은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고 생각해요.

Q. 그 연장선에서 대학주보가 언론으로서 가져야 할 '문제의식', 그리고 구성원에게 기사로 제안할 '실천적 대안'에 대해 말씀해 주실 부분도 있을 것 같습니다.

어느 언론인과 대화를 나눈 적이 있어요. ‘언론은 왜 인류의 생존과 실존이 걸린 시대의 문제에 더 많은 지면을 할애하지 않는가요?’ 답은 간단했지요. ‘판매 부수’. 그 답은 지금 우리가 사는 세계 현실을 상징하는 아이콘처럼 보여요. 그러나 그 답안에 우리의 미래를 위협할 시대의 의식이 자리 잡고 있어요. 어느 원로 학자는 이런 말을 전했어요. “세계관(world-view)은 버려진 장난감이 아닙니다.” “시대의 현실을 만들어 갑니다.” 세계관, 혹은 세계를 읽어내는 관점과 안목이 평화와 공동 번영의 미래를 열 수도, 붕괴의 길을 자초할 수도 있습니다. 어느 길을 가게 될지. 시민 개개인의 의식과 선택에 달려 있겠지요.

경희와 대학주보는 그런 역사 인식에 남다른 관심을 가져왔어요. 경희의 설립 서사인 “문화세계의 창조”, “학문과 평화”의 전통. 그 길과 함께 경희는 정체성을 일구어 왔습니다. 이제 그 위에 하나를 더한다면, 현실 너머 존재해야 할 몽상가적 꿈을 현실로 만드는 전환적 노력이라고 생각해요. 역사가 말하듯이 위기 너머 세계는 또 다른 현실을 꿈꾸는 자, dreamers에 의해 펼쳐져 왔습니다.



약한 시간 여의 대담 이후, 조 이사장은 대담에 참여한 대학주보 기자와 함께 생활과학대학 앞 입간 교실에서 한 시간 여의 이야기를 더 나눴다.

전환적 노력을 이어가기 위해선 몇 가지 사안이 중요해 보여요. 경희대는 고등교육 기관입니다. 학술 연구를 통해 진리를 탐구해 갑니다. 이를 위해 쌓아 올린 지식이 자신을 위해, 세계와 미래를 위해 어떤 의미를 주는지 성찰하는 ‘사유의 여백’은 중요합니다. 또 다른 실천적 과제는 유례없는 위기와 기회가 교차하는 전환의 시대를 맞아 대학의 근본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일입니다. 실용과 실익을 위한 전문 지식을 쌓아가면서도, 통합적이고 전일적(全一的)인 접근을 수행하는 것이 필요해 보여요. 위기와 기회를 함께 관리하는 지식과 지혜의 창조적 융합도 중요하겠지요.

Q. 대학주보와 직접 인터뷰를

했던 기록이 2017년 5월이 마지막입니다. 대학주보를 통한 구성원과의 공감에 짧지 않은 공백이 생긴 것 같습니다. 앞으로 저희 신문을 통한 구성원과의 만남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이번 기회를 통해 전체 학생 구성원에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으신지도 궁금합니다.

구성원과 만남의 기회는 늘 즐겁고 보람 있는 일이에요. 교수로 재직하던 시절, 학생들과 강의실에서, 강의실 밖에서 다양한 논제를 놓고 대화와 토론의 시간을 가졌어요. 총장 재임 시절엔 강연과 대담 형식을 빌려 시대의 가치, 지구적 현안의 문명사적 함의를 놓고 재학생 여러분과 여러 차례 이야기를 나눴던 기억이

있어요. 세대를 뛰어넘어 대화를 나누는 일, 사회적 현안의 문명사적 함의를 함께 논의하는 일은 서로에게 배움의 길을 열어주는 일이지요. 대학주보가 그런 기회를 마련하면 기쁜 마음으로 참여하겠습니다.

학생 구성원에게는 경희의 미래를 함께 소중히 일구어 가자는 말씀을 다시 전하고 싶습니다. 경희는 한국전쟁 발발 전후 출범해 거의 무에서 유를 창조한 대학이죠. 초기에는 교직원 22명, 3개 학과 입학 정원 150명, 설립 당시 떠안게 된 부채 1,500만 원이 전부였어요. 남다른 자산이 있다면, 설립 후 세운 “문화세계의 창조”라는 설립 정신과 “세상 어느 곳에도 없는 명문의 길을 걷겠다”는 실천 의지였어요. 설립 이래 지금까지 수많은 분이 함께한 그 여정이 오늘의 경희를 만들었습니다.

“의지는 역경을 뚫고 힘동은 기적을 낳는다.” 경희의 역사 속에 스며 있는 그 말은 이제 도전적 미래를 일구어 가야 할 학생 여러분께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요. 미래는 항상 꿈꾸는 자의 몫입니다. “학문과 평화” “Towards Global Eminence”라는 경희의 가치가 여러분의 미래에 디딤돌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에요. 위기와 희망이 어지럽게 교차하고 있어요. 경희학원은 여러분 곁에서 늘 응원하고 성원할 겁니다. 새 시대, 새 희망의 중심에서 세계 될 미래세대 여러분의 건승을 기원합니다.